

# 지 역 단 신

## 10월 지부회의 개최 예정지

5일	경남지부회의	20일	전북지부회의
10일	부산지부회의	24일	충남지부회의
15일	전남지부회의	31일	충북, 경북지부회의

### '94 하반기 영농공개강좌 KBS 농진청 공동주관

'94년 하반기 영농 공개강좌가 한국방송공사와 농촌진흥청 공동주관으로 지난 9월 9일 전남 여천군 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개강좌에는 3백50여명의 인근 약초재배 농민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농촌진흥청 성낙술 박사(약용작물과 작물시험장)는 「약초재배 현황과 전망 및 주요 약초의 재배기술」에 관하여 특별 강의하고, 여천 생약 생산자 조합법인 주성순 대표는 「약초수확 가공 및 판매」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본 협회 정형모 지부장(한국생약협회 전라남도 지부)과 여러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보건사회의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지정 움직임과 한약재 규격화 시행에 관해서도 생산농가 보호차원의 우려와 함께 대책방안이 일부 토론되기도 했다.

### 경남지부 회의개최



○...경남지부(지부장·이영갑)회의가 지난달 5일 경남 거제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지역 생산 회원들은 최대 현안문제인 보사부 규격화 고시와 관련 국내산 한약재 규격화 철회를 위한 연대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남지부 산하 자체 조직의 인화단결과 단합에 대한 문제

• 가을 수확을 앞두고 지역별 생산량 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앙본부에 보고

• 지방회원(생산회원) 확보 문제

또한 이영갑 지부장은 지역별 소장의 단합을 위하여 유람선을 대절하고 한려수도인 거제 앞 바다에 배를 띄워 수중 "스쿠다이버" 3명을 초청, 직접 수중에서 생선회를 장만하는 등 서로의 친목을 도모.

### 약용작물 시범전시포 견학

지난달 27일 경남산업대학교 고영옥 농학박사, 경남농촌진흥원 약용작물시험장 김은석 관리실장, 함양농촌지도소 실무진은 본 협회 김창한 이사 및 백문기 합천군 사무소장과 같이 경남지역 약초동우회원 50여명을 대동하고 경북 경산에 있는 「약용작물 시범 전시포」를 견학했다.

이 전시포는 본 협회 경북 지부장인 배성한 이사가 UR 대비 대처 농작물 연구 시범단지로서 8백60여종에 달하는 생약 품종을 개발 연구하고 있는 곳이다.

배성한 지부장은 견학 온 생약회원들에게 「전시포에서 연구 개발된 품종을 전국에 단지를 조성, 보급함으로써 고품질의 생약을 개발해 낸다면 우리 농촌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피력.

또 배지부장은 이농 현상을 막고 선진 농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묘법 개정을 하여서라도 농민 단체 및 특수 작물 연구 단체에 자금 지원 및 해외 전문인을 파견,



많은 선진지 견학 및 신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지부장은 오는 95년에는 품종을 약 1천5백여종으로 늘려 개발 할 계획이며 아울러 단일 품목이 약이 되는 작물을 많이 개발하여 생약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 택사주산단지, 승주군 해룡면

## 엑기스추출 드링크개발 계획도 연소득액 4억7천5백만원

전국 택사 생산량의 40%를 점하고 있는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지난 93년 택사주산단지 지정된 승주군 해룡면은 지난 59년 0.1ha(3백평) 택사재배를 시작으로, 현재 전체면적 72ha에서 매년 3백17t 정도의 물량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택사재배로 인한 년 소득액만도 4억7천5백만원에 달한다.

“택사는 벼를 수확하고 난 8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농한기를 이용해 재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력을 연중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 지역 농촌상담소장 임용택씨의 설명이다. 그만큼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됨은 물론이다.

일반 벼농사 만을 재배할 경우 쌀 4백30kg 수확(3백평 기준)에 7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 벼를 조기재배하고 후작으로 택사를 재배할 경우 쌀 4백12kg, 택사 1백80kg 수확으로 총 1백12만 원정도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1읍면 1특산물 사업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잡은 택사.

해룡면에 택사재배가 성황을 이룬 이유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따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10여년간을 농촌 발전에 헌신해 온 임용택상담소장의 공을 빼 놓을 수 없다.

원래 축산을 전공했다는 그는 10여년간을 고향인 이곳 승주군 농촌상담소에서 일해 오면서 농가소득증대와 영농기술 보급에 앞장서 왔다.

택사만 하더라도 임소장의 노력으로 과거보다 3배 가량 그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이다.

『정보는 곧 돈』이라고 피력하는 임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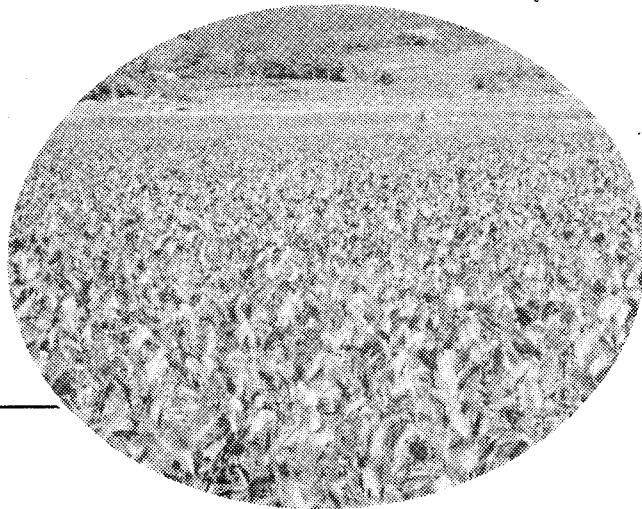
그래선지 그는 유난히 바쁘다. 얼마전엔 택사 성분분석을 관계기관에 의뢰해 좋은 상태이며, 분석 데이터가 나오면 택사를 이용 엑기스를 추출 각종 드링크 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뿐 아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올해 안으로 택사 수확 기계를 들여 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노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택사 수경재배의 성공 여부를 의뢰, 이미 연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순천 국약협회 부회장이자로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판소리) 장학 전수생이기도 한 그는 해룡 부녀농약대, 해룡 국민학교 농약대를 만들어 우리 것을 알리고 보급하는데도 열심이며 곧 중학교 농약대도 발족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해룡면의 유래, 전설, 문화유적, 사적지 등의 자료를 조사 일명 「해룡항리지」를 만들 계획으로 이미 3년 전에 이 작업에 착수했다는 임용택소장은 지난 6월 30일 그간 애쓴 노고를 인정받아 모범 공무원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승주군 해룡면 택사재배단지.



## 전주 약령시 부활 추진

### 연간 매출 7천억 예상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 당했던 전주의 약령시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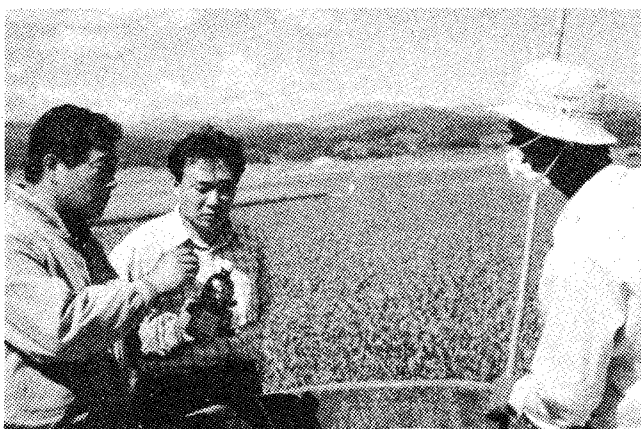
전주시의회와 한의사 한약업자 건재도매상 협회 등 전북도내 한약 관련단체들은 최근 한약재 시장조사 등을 마치고 시 당국에 약령시 부활을 촉구키로 했다.

전주의 약령시는 현재 다가동 우체국자리에서 일제시대 이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곳으로 전해지는데 지난 43년 일제의 생약통제령에 의해 폐쇄당했다.

시 의회 全南田 도시건설위

원장이 여론 전문 조사기관인 전북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한의원 1백92개소 등 한약관련 업소가 4백77개소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약령시 부활에 적극적인 찬성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한약재의 전북도내 매출액은 1일 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령시가 개설될 경우 광주와 대전권을 한약시장으로 흡수, 연간 매출액이 6천억원~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택사재배와 관련 농민과 상담하고 있는 임용택 농촌상담소장(左); 나한주 승주군 사무소장(右).